

수퍼비전관계가 예술치료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기신념의 매개와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 효과*

김 동 민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이 연구는 예술치료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퍼비전관계, 자기신념, 전문성 발달 및 수퍼비전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예술치료 관련 학, 석사 학위과정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슈퍼바이저 212명이며, 이로부터 수집된 설문자료를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수퍼비전관계가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슈퍼바이저의 자기신념이 완전매개하며, 이러한 구조적 관계는 수퍼비전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예술치료 슈퍼비전의 효과와 예술치료사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고찰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예술치료 슈퍼비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예술치료, 수퍼비전관계, 자기효능감, 자기신념, 전문성 발달

최근 심리치료의 보편화와 더불어 예술치료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또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예술치료사의 전문성에는 심리치료 이론과 기술뿐만 아니라 예술 이론과 기술도 포함되므로, 예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은 다면적인 훈련과정을 요한다(김동민, 2009, 2012; 김영신, 2014). 특히 임상현장에서의 치료적 개입에 대한 수퍼비전은 이론과 실제의 통합 및 확장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이며, 따라서 치료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증진하는 일에 필수적이다(Bernard & Goodyear, 2004; Goodyear & Guzzardo, 2000; Holloway & Neufeldt, 1995).

'Super(특별한, 특출한)'와 'vision(통찰력, 선견지명)'의 결합어로 '감독/관리'란 의미를 가지는 수퍼비전은 치료사의 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이지만, 수퍼비전관계는 단지 교육적이거나 평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신뢰적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으로 간주되기도 한다(Borders & Leddick, 1987; Forinash, 2001; Hess, 1987). 따라서 슈퍼바이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슈퍼바이저와의 바람직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한 수퍼비전관계 형성이며(Nelson, Friedlander, Ladany, & Walker, 2001), 이러한 수퍼비전관계는 수퍼비전 효과를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Worthen & McNeill, 1996).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바람직한 수퍼비전관계에 공감, 수용, 존중, 신뢰, 및 보살핌 등이 존재하며(김동민, 2009; Bordin, 1983; Martin, Goodyear, & Newton, 1987), 수퍼비전관계가 좋을수록 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Bernard & Goodyear, 2004; Ramos-Sanchez et al., 2002).

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이론은 인간 발달에 순차적 단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Erikson(1963)의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치료사의 발달 단계별 특징과 그에 적합한 수퍼바이저의 개입을 제시한 Hogan(1964)에서부터 여덟 가지 수퍼비전 주제를 제시한 Longanbill, Hardy와 Delworth(1982), 여러 발달 모형을 통합하여 통합발달 모형(Integrated Development Model: IDM)을 제시한 Stoltenberg와 Delworth(1987), 경험적 연구에 기초한 모형을 제시한 Skovholt와 Ronnestad(1992), 한국 상담자 교육 모형을 제시한 김계현(1992), 한국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제시한 심홍섭(1998)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치료사, 내담자, 치료사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 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며(이장호, 2005; 장재홍, 권희경, 2002), 이 중에서도 치료사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박정민, 2006; 손난희, 2007). 이와 관련하여, 치료사의 역전이 관리 능력이 중요한 치료사 요인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Williams, Judge, Hill, 그리고 Hoffman(1997)은 초보치료사들일수록 자신의 감정에 대한 조절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인 개입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Tracey(1998)의 연구에서는 수퍼비전을 오래 받은 치료사들이 초보치료사들에 비해 내담자의 욕구나 요구에 의해 조정당하는 반응을 자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신교숙과 김광웅(2001), 은 치료사의 발달수준과 역전이 관리능력 간의 정적상관을 보고하였고, 김현정(2003) 및 강차연(2008)은 치료사의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감정 지각능력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그리고 양경연(2005)은 치료사의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행동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도 자기효능감이 치료사의 전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등, 자기효능감과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강진구, 연문희, 2005;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 2007; Larson & Daniels, 1998; Larson et al., 1992).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은 임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치료사 스스로의 신념이므로(Larson & Daniels, 1998),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자기신념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특정 상황에서 성취에 필요한 하위

기술들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자 자기-참조적 사고라 정의하고, 이는 자신의 성취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s), 타인의 성취경험에 대한 관찰/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사회적/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과제-특수적인 신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은 수퍼비전을 통한 임상에서의 성취경험, 슈퍼바이저의 모델링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긍정적인 수퍼비전관계 경험 등에 의해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수행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치료사의 실제 수행력 증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치료사 발달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양적, 질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예술치료 분야에서의 수퍼비전과 슈퍼바이저 발달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도 석사학위 논문인 실정이다.

지난 10년 간 국내 예술치료 관련 주요 학회지에 등재 된 논문들 중, 예술치료 수퍼비전과 치료사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강차연(2008)의 '미술치료 실행가의 발달수준 및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김동민(2009)의 '음악치료 집단 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치심과 평가불안에 대한 질적연구,' 김태은(2009)의 '미술치료사의 수퍼비전 체험 연구,' 최선남(2009)의 '슈퍼바이저의 미술치료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 분석'과 '수퍼비전 만족도에 따른 슈퍼바이저에 대한지각과 상호작용 질의 차이,' 그리고 김동민(2012)의 '음악치료 집단 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치심, 애착유형, 자기효능감, 정서적 유대, 평가불안 간의 관계,' 윤주리(2013)의 '음악치료 전공생이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성장에 대한 연구,' 이경숙(2015)의 '음악치료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피드백 수용도, 슈퍼바이저 스타일, 슈퍼바이저 발달수준, 수퍼비전 작업동맹 간의 구조분석' 등, 열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예술치료 관련 학, 석사 학위과정에서 활발히 임상을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퍼비전관계, 자기신념 및 치료사 전문성 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와 그 관계에 미치는 수퍼비전 만족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술치료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 경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예술치료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예술치료 수퍼비전의 질적 향상, 예술치료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고양, 더 나아가 예술치료 임상 효과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향후 국내외 예술치료분야의 교육과 연구에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제까지 검토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수퍼비전관계는 역전이 관리 능력 등을 포함하는 수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을 수퍼바이지의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신념이 부분, 또는 완전 매개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는 수퍼비전에 대한 전체적 만족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수퍼비전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낮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

1. 수퍼비전관계가 예술치료 수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예술치료 수퍼바이지의 자기신념이 1의 관계를 부분, 또는 완전 매개할 것이다.
3. 수퍼비전 만족도가 수퍼비전관계, 수퍼바이지의 자기신념 및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방법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

예술치료 수퍼비전에서의 수퍼비전관계, 수퍼바이지의 자기신념, 전문성 발달 및 수퍼비전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국내 예술치료 관련 학, 석사 학위과정에서 실습 또는 인턴십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수퍼바이지 23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방문 설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의의 등을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거된 215부 중 결측이 있는 3부를 제외한 21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9월 19일에서 28일이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대부분 상담자를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것으로, 예술치료사를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 된 척도가 부재한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예술치료사와 가장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상담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척도들을 예술치료사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까지 예술치료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적절한 것으로 수용되어 왔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예술치료 관련 선행

연구들이 보고한 척도사용의 선례들을 참고하여 척도의 문항들 중 '상담'을 '예술치료'로, '상담자'를 '치료사'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등,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자료 및 결과의 신뢰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 수퍼비전 작업동맹 척도 - 수퍼바이지용(Supervision Working Alliance Inventory - trainee version: SWAI-T)

이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2006)이 변안한 Bahrick(1990)의 SWAI-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에 대한 동의, 과제에 대한 합의, 정서적 유대 등 세 가지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 별 12 문항씩 총 36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커트식 7 점(1=전혀 그렇지 않다, 7=항상 그렇다)척도로 총점의 분포는 36 점에서 252 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작업동맹이 좋은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목표에 대한 동의 .91, 과제에 대한 합의 .88, 정서적 유대 .87이었다(강지연, 유성경, 2006).

나.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 CASES)

이 척도는 Lent와 Hill 및 Hoffman(2003)의 척도를 이수현과 서영석 및 김동민(2007)이 타당화 한 것으로, 조력기술 수행, 회기관리 및 난제상황 대처에 대한 치료사의 자기 지각적 능력을 10점 리커트로 측정한다(0=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9=완전히 확신한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며, 하위요인은 조력기술 14문항, 회기관리 10문항, 상담난제 16문항이다. 예술치료 슈퍼바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상담'을 '예술치료'로, '상담자'를 '예술치료사'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자기격려/낙담 척도(Self-Encouragement-Discouragement Inventory: SEDI)

이 척도는 노안영과 정민(200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으로 CASES와 함께 예술치료 슈퍼바이지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즉 자기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자기격려 척도가 자기효능감 척도와 정적상관을 가진다는 노안영과 정민(2007)의 연구결과 보고이다.

이 척도는 총 60문항의 5점 리커트(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이며, 자기격려 30문항(인지 10문항, 행동 10문항, 정서 10문항)과 자기낙담 30문항(인지 10문항, 행동 10문항, 정서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자기격려를 측정한 이 연구에서는 자기낙담에 해당하는 30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노안영과 정민(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이 척도의 검사-재검사 내적합치도는 자기격려 .854, 자기낙담 .867이었다.

라.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

이 척도는 상담대화기술 10문항(예, 내담자의 말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다), 사례 이해 11문항(예,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상을 이해한다), 알아차리기 9문항(예, 내담자의 감정을 잘 포착한다), 상담계획 11문항(예,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위하여 특정한 계획을 세운다), 인간적·윤리적 태도 9문항(예, 내담자에게 평가적이거나 판단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한다)의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4점 Likert(1=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4=상당히 일치한다)로 평가하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발달 수준인 것으로 해석한다. 심홍섭(1998)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내적합치도는 .92이고, 각 하위유형 별 내적합치도는 대화기술 .83, 사례이해 .84, 알아차리기 .86, 상담계획.85, 인간적·윤리적 태도 .78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예술치료 슈퍼바이저의 발달수준 측정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을 '예술치료'로, '상담관계'를 '치료관계'로, '상담자'를 '치료사'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항을 예술치료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마. 역전이 관리능력 척도(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CFI)

이 척도는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Van Wagoner, Gelso, Hayes 와 Diemer(1991)가 개발한 척도를 장세미(1999)가 번안한 것으로, 자기통찰 11문항(예, 나는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나 자신의 갈등 영역이 있음을 자주 깨닫는다), 공감능력 11문항(예, 나는 내담자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자기통합 11문항(예, 나는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불안관리 8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강한 감정을 드러내도 동요되지 않는다), 개념화기술 9문항(예, 나는 내담자의 과거에 비추어서 관계역동을 개념화한다)의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능력이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Wagoner 등(1991)이 보고한 이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7이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자기통찰 .91, 공감능력 .92, 자기통합 .91, 불안관리 .91, 개념화기술 .99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KCLQ와 마찬가지로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을 '예술치료'로, '상담관계'를 '치료관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바. 슈퍼비전 유형 질문지(Supervisory Styles Inventory: SSI)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유형을 측정하는 이 설문지는 Friedlander와 Ward(1984)가 제작한 33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매력적(attractive), 대인민감적(interpersonally sensitive), 과업지향적(task oriented)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7점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리커트식 척도이다.

Friedlander와 Ward(1984)의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전체 .89, 매력적 .89, 대인 민감적 .88, 과업지향적 .8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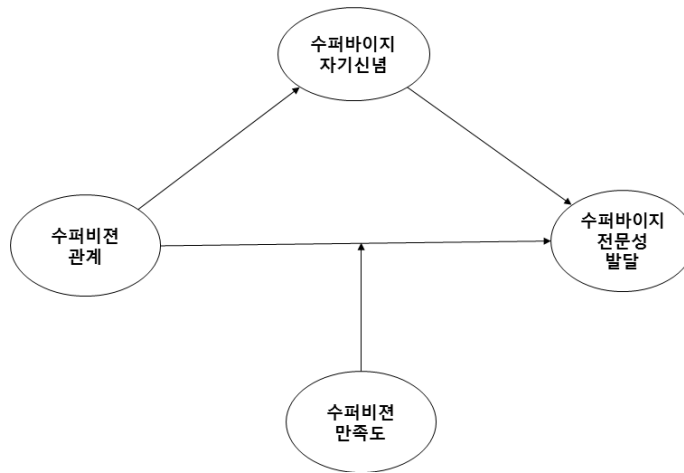
본래 이 척도는 수퍼비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각 유형별 점수들을 합산한 후 평균을 구하여 그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유형을 수퍼비전 유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수퍼비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 유형별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는 대신, 모든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수퍼비전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척도를 수퍼비전 만족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이유는 첫째, 수퍼비전 만족도를 측정하기에 충분히 신뢰로운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며, 둘째, 이 척도의 질문들이 슈퍼바이저가 함양해야 할 소양과 역량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퍼비전 만족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e.g., 친절한, 융통성 있는, 지지적인, 개방적인, 통찰력 있는, 헌신적인, 성찰적인, 구체적인, 구조화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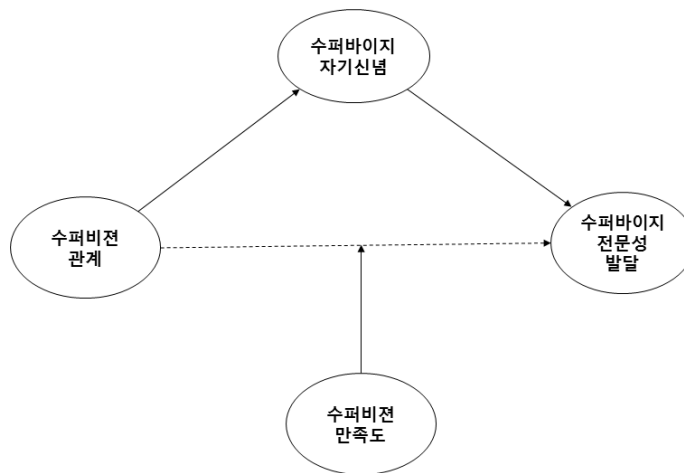
분석방법

이 연구의 측정 자료들에 대한 기초통계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들은 AMO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구성개념간의 이론적인 관계와 상관성의 측정지표를 통한 경험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계기법으로, 여러 단계의 변수들의 관계 구조를 동시에 분석하기에 유용하다(김계수, 2004).

수퍼비전관계와 치료사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와 이에 대한 치료사 자기신념의 매개효과 및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이 연구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결측 자료를 고려한 정규성 검증 실시하였다. 주요인들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사전분석으로 수퍼비전의 직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과정변수를 제외하고 수퍼비전과 통제변수만 포함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측정요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그림 1과 2 참조).



<그림 1> 연구 모형



<그림 2> 연구 모형 2

결과

연구참여자 212명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표 1 참조), 여성 예술치료 전공자의 수($n=195$)가 남성($n=1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은 25세에서 29세가 가장 높은 비율(42.9%)을 차지하였다. 학부생(22.9%)에 비해 대학원생(75.6%)의 비

율이 3배 이상 높았으며, 수퍼비전 형태는 개별형태(31.0%)에 비해 집단형태(65.0%)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현장 방문 형태(40.4%)에 비해 수업형태(52.2%)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212)

		n(명)	%	M±SD
성별	남성	17	8.0	
	여성	195	92.0	
연령	20-24세	56	26.7	
	25-29세	90	42.9	
	30-34세	38	18.1	
	35-39세	9	4.3	
	40세 이상	17	8.1	
학위과정	학부	47	22.9	
	대학원	155	75.6	
	기타	3	1.5	
수퍼비전 형태 1	개별	61	31.0	
	집단	128	65.0	
	기타	8	4.1	
수퍼비전 형태 2	임상현장방문	82	40.4	
	학교수업형태	106	52.2	
	기타	15	7.4	
임상 대상	발달장애-아동	40	23.3	
	정신장애-아동	13	7.6	
	일반-아동	10	5.8	
	발달장애-성인	5	2.9	
	정신장애-성인	43	25.0	
	일반-성인	9	5.2	
	정신장애-노인	28	16.3	
	기타	24	14.0	
임상유형	음악치료	147	70.3	
	미술치료	50	23.9	
	기타	12	5.7	
총 수퍼비전 횟수				22.60±21.93
총 수퍼비전 시간				42.90±100.72
현재학기 수퍼비전 횟수				4.34±5.67
현재학기 수퍼비전 시간				5.43±5.84

임상실습 대상의 분포는 아동(36.7%), 성인(33.1%), 노인(16.3%) 순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유형은 음악치료(70.3%)가 미술치료(23.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척도의 기술통계와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참조), 모든 척도들의 하위영역 및 전체 신뢰도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 사용된 모든 척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척도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

척도	하위영역	M	SD	Cronbach's α	
SSI	매력적	5.41	1.06	.922	.936
	대인매력적	5.32	0.88	.868	
	과업지향적	5.05	0.80	.839	
SWAI-T	목표에 대한 동의	4.46	0.69	.776	.910
	과제에 대한 합의	4.56	0.66	.781	
	정서적 유대	4.47	0.74	.799	
CASES	조력기술	5.74	1.05	.870	.950
	회기능력	5.98	1.21	.921	
	상담단체	4.66	1.26	.924	
SEDI	자기격려	3.77	0.61	.953	.773
	자기부담	2.25	0.73	.962	
KCLQ	대화기술	2.96	0.38	.804	.948
	사례이해	2.90	0.39	.822	
	알아차리기	2.85	0.41	.805	
	상담계획	2.74	0.41	.839	
	인간적, 윤리적 태도	3.09	0.35	.748	
CFI	자기통찰	3.57	0.49	.785	.950
	공감능력	3.53	0.51	.835	
	자기통합	3.39	0.53	.866	
	불안관리	3.39	0.61	.820	
	개념화기술	3.20	0.55	.838	

다음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표 3 참조). 측정변수의 타당도는 AVE 값과 Construct Reliability(C. R.)로 이용하였는데, AVE 값이 .50 이상이며 C. R. 값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AVE 값은 잠재변수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 3〉 AVE 와 Construct Reliability(C.R.)

	SWAI-T	CASES	SEDI	KCLQ	CFI	C. R.
SWAI-T	(.858)					.947
CASES	.421	(.533)				.772
SEDI	.346	.553	(.845)			.915
KCLQ	.271	.615	.637	(.946)		.989
CFI	.553	.632	.683	.726	(.871)	.971

(AVE)

측정모형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측정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표준화 적재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표 4 참조). 연구 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4〉 측정 모형

		<i>B</i>	<i>SE</i>	β	<i>t</i>	<i>p</i>
SWAI-T	목표에 대한 동의	1.000		.942		
	과제 한 대한 합의	.894	.050	.886	17.851	.000
	정서적 유대	.853	.062	.751	13.746	.000
CASES	조력기술	1.000		.730		
	회기능력	1.384	.124	.883	11.172	.000
	상담단체	1.177	.121	.718	9.751	.000
SEDI	자기격려	1.000		.967		
	자기부담	-.902	.087	-.730	-10.354	.000
KCLQ	대화기술	1.000		.874		
	사례이해	1.028	.058	.881	17.850	.000
	알아차리기	1.110	.061	.888	18.122	.000
	상담계획	1.033	.065	.831	15.966	.000
	인간적, 윤리적 태도	.817	.059	.767	13.878	.000

<표 4> 계속

		<i>B</i>	<i>SE</i>	β	<i>t</i>	<i>p</i>
	자기통찰	1.000		.643		
	공감능력	1.411	.115	.882	12.240	.000
CFI	자기통합	1.572	.140	.941	11.189	.000
	불안관리	1.326	.150	.691	8.850	.000
	개념화기술	1.541	.144	.881	10.703	.000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CFI(comparative fit index)와 NNFI(non-normed fit index)/TLI(Turker-Lewis index)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8 미만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Chi-Square 통계량의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 < .001$) 카이제곱은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며 150~200 범위 이내에 있을 때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적절한 값을 얻을 수 있다(김계수, 2004). 이에, 표본크기가 이 범위를 벗어날 때 계산되는 카이제곱값 보다는 Q 통계량을 이용하였는데, 그 값이 22.095로 3.0 미만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표 5 참조).

<표 5>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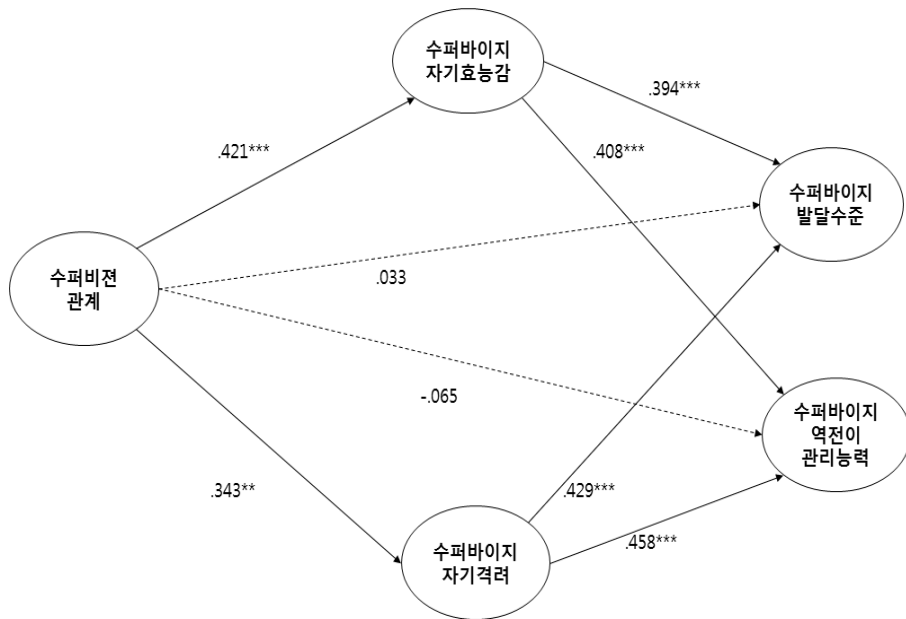
	χ^2	<i>df</i>	<i>p</i>	<i>Q</i>	CFI	NNFI/TLI	RMSEA
연구모형	255.535	122	.000	2.095	.954	.943	.072
기준			>.05	<3.0	≥.90	≥.90	<.08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그림 3과 표 6 참조), 수퍼비전관계는 수퍼바이저의 자기효능감($p < .001$)과 자기격려($p = .001 < .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달수준($p = .603 > .05$)과 역전이 관리능력($p = .287 > .05$)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설 검증

			<i>B</i>	<i>SE</i>	β	<i>t</i>	<i>p</i>
수퍼비전관계	→	자기효능감	.499	.093	.421	5.383	.000
수퍼비전관계	→	자기격려	.311	.064	.343	4.863	.000
수퍼비전관계	→	발달수준	-.017	.032	-.033	-.519	.603
수퍼비전관계	→	역전이 관리능력	-.032	.030	-.065	-1.064	.287
자기효능감	→	발달수준	.0169	.036	.394	4.660	.000
자기효능감	→	역전이 관리능력	.168	.036	.408	4.652	.000
자기격려	→	발달수준	.241	.046	.429	5.207	.000
자기격려	→	역전이 관리능력	.247	.048	.458	5.174	.000

수퍼바이지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격려가 발달수준과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슈퍼바이지 자기효능감은 발달수준($p < .001$)과 역전이 관리능력($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자기격려 또한 발달수준($p < .001$)과 역전이 관리능력($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슈퍼바이지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격려 정도가 높을수록 발달수준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모형 검증

수퍼비전관계가 수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퍼바이지 자기신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먼저, 수퍼비전관계가 수퍼바이지의 발달수준과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퍼바이지의 자기효능감은 수퍼비전관계가 수퍼바이지의 발달수준과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수퍼바이지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수퍼비전관계가 수퍼바이지의 발달수준($p < .001$)과 역전이 관리능력($p < .001$)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치료사 자기신념 매개효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z	p
수퍼비전관계	→ 자기효능감	→ 발달수준	3.533	<.001
수퍼비전관계	→ 자기효능감	→ 역전이 관리능력	3.521	<.001
수퍼비전관계	→ 자기격려	→ 발달수준	3.563	<.001
수퍼비전관계	→ 자기격려	→ 역전이 관리능력	3.533	<.001

다음으로는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 정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퍼비전관계와 수퍼비전 만족에 대한 점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으며, 수퍼비전관계와 수퍼비전 만족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표 8 참조). 분석 결과, 수퍼비전관계와 수퍼비전 만족도의 상호작용 항은 수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수퍼비전 만족도 조절효과

		B	SE	β	t	p
수퍼비전관계	→ 전문성 발달	.014	.025	.059	.575	.565
x 수퍼비전 만족						

결과들을 종합하자면, 예술치료 수퍼비전에서 수퍼비전관계가 수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수퍼바이지의 자기신념이 완전매개하며, 이때에 수퍼비전 만족도는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퍼비전관계가 공고할수록 수퍼바이지의 자기신념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수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 수준도 높아지는데, 이러한 구조적 관계는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연구 가설에 따른 결과요약과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설 1 “수퍼비전관계가 예술치료 슈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에 의하면, 수퍼비전관계가 예술치료 슈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 2의 “예술치료 슈퍼바이지의 자기신념이 1의 관계를 부분 또는 완전매개할 것이다”에 대한 분석에서 수퍼비전관계가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슈퍼바이지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격려의 완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수퍼비전관계는 슈퍼바이지 자기신념의 완전매개를 통해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기신념의 부분매개 효과를 예상한 연구모형 1이 기각되고 완전매개 효과를 예상한 연구모형 2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퍼비전관계가 좋을수록 슈퍼바이지의 발달이 촉진되며, 이는 슈퍼바이지의 자기효능감과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낙담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격려하는 신념의 향상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퍼비전관계가 좋을수록 어려움이 있어도 치료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슈퍼바이지의 자기신념이 높아지며,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치료사의 전문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퍼비전관계가 수퍼비전의 효과인 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을 예견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e.g., Nelson, Friedlander, Ladany, & Walker, 2001; Worthen & McNeill, 1996), 그리고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치료사의 전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e.g., 강진구, 연문희, 2005; Larson & Daniels, 1998; Larson et al., 1992)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가설 3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수퍼비전관계, 슈퍼바이지의 자기신념 및 전문성 발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에 대한 분석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수퍼비전관계가 예술치료 슈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더욱 공고해지거나,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주목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기 보다는 수퍼비전관계가 예술치료 슈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수퍼비전에 만족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수퍼비전관계가 수퍼비전 효과, 즉 치료사의 발달을 예견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다양한 수퍼비전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Bernard & Goodyear, 2004; Nelson, Friedlander, Ladany, & Walker, 2001; Ramos-Sanchez et al., 2002; Worthen & McNeill, 1996).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와 관련한 향후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는 예술치료에서 수퍼바이지가 지각하는 수퍼비전관계, 자기신념, 전문성 발달 및 수퍼비전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현재 예술치료 관련 학위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수퍼바이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예술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예술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퍼비전관계의 영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예술치료 또는 상담/심리치료 관련 수퍼비전 만족도를 측정하기에 충분히 신뢰로운 척도가 아직까지 부재한 이유로, 부득이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들(e.g., 친절한, 융통성 있는, 지지적인, 개방적인, 통찰력 있는, 헌신적인, 구체적인, 구조화된, 등)로 구성된 수퍼비전 유형 질문지(SSI)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퍼비전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 예술치료 수퍼비전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수퍼비전 효과와 관련하여 상당히 유의미한 기여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국내 예술치료에서의 수퍼비전관계, 수퍼바이지의 자기신념, 전문성 발달 및 수퍼비전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로, 이 연구의 결과는 예술치료 수퍼비전의 궁극적 목적인 수퍼바이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퍼바이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무가 지지적인 수퍼비전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수퍼바이지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격려 성향을 고취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수퍼바이저 훈련의 주요 목표가 지지적인 수퍼비전관계 형성능력의 향상이 되어야 함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수퍼비전의 효과 및 예술치료사의 발달 경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예술치료 수퍼비전의 효과, 예술치료사 전문성 및 예술치료의 효과 향상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예술치료 수퍼비전이 나아갈 방향과 예술치료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강지연, 유성경 (2006). 슈퍼바이지 수치심과 슈퍼비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작업동맹 및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4), 1005-1021.
- 강진구, 연문희 (2005). 단기상담 훈련프로그램이상담자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6, 339-362.
- 강차연 (2008). 미술치료 실행가의 발달수준 및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9(3), 905-923.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수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4(1), 19-53.
- 김동민 (2009). 음악치료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지가 지각하는 수치심과 평가 불안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60-85.
- 김동민 (2012). 음악치료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지가 지각하는 수치심, 애착유형, 자기효능감, 정서적 유대, 평가불안 간의 관계.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2), 1-27.
- 김영신 (2014). 인턴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1), 65-92.
- 김태은 (2009). **미술치료사의 슈퍼비전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5).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기위로능력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3집, 105-135.
- 노안영, 정민 (2007). 자기격려-낙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73-692.
- 박정민 (2006). **상담자 회기 내 자기지각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손난희 (2007). **상담수퍼비전에서 초심상담자들의 자기고양적 성향과 위협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상담자 경력 수준에 따라 슈퍼비전 작업 동맹이 역할 어려움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1.
- 신교숙, 김광웅 (2001). 놀이치료자의 경력, 훈련 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4(1), 57-69.
- 심흥섭 (1998). **상담자의 발달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양경연 (2005).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및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왕은자 (2000). **소집단 슈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윤주리 (2013). 음악치료 전공생이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성장에 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0(2), 35-54.
- 이경숙 (2015). 음악치료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피드백 수용도, 슈퍼바이저 스타일, 슈퍼바이저 발달수준, 슈퍼비전 작업동맹 간의 구조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7(1), 23-43.
-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 (2007).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 국내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55-673.
- 이장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 장재홍, 권희경 (2002).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487-509.
- 최선남 (2009). 슈퍼바이저의 미술치료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 분석. **미술치료연구**, 16(4), 637~653.
- 최선남 (2009). 슈퍼비전 만족도에 따른 슈퍼바이저에 대한지각과 상호작용 질의 차이. **미술치료연구**, 16(5), 849-860.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4).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Borders, L. D., & Leddick, G. R. (1987). *Handbook of counseling supervision*.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 Bordin, E. S. (1983). A working alliance-based model of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1), 35 - 42.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Friedlander, M. L., & Ward, L. G. (198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pervisory styl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41-557.
- Forinash, M. (Ed.)(2001). *Music therapy supervision*.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Goodyear, R. K., & Guzzardo, C. R., (2000). Psychotherapy supervision and train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Third Edition*.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 Hess, A. K. (1987). Psychotherapy supervision: Stages, buber, and a theory of relationship.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8, 251-259.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1, 139-141.
- Holloway, E., & Neufeldt, S. A. (1995). Supervision: Its contributions to treatment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207-213.

- Ladany, N., Hill, C. E., Corbett, M. M., & Nutt, E. A. (1996). Nature, extent, and importance of what psychotherapy trainees do not disclose to their supervis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0-24.
- Larson, L. M., Daniel, J. A. (1998). Review of the counseling self-efficacy literatur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6*, 179-218.
- Larson, L. M., Suzuki, L. A., Gillespie, K. N., Potenza, M. T., Bechtel, M. A., & Toulouse, A. L.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105-123.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Martin, J. S., Goodyear, R. K., & Newton, F. B. (1987). Clinical supervision: An intensive case stud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8*(3), 225-235.
- Nelson, M. E., Gray, L. A., Friedlander, M. L., Ladany, N., & Walker, J. A. (2001). Toward relationship-centered supervision: Reply to Veatch (2001) and Ellis (2001).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 407-409.
- Ramos-Sanchez, L., Esnil, E., Goodwin, A., Riggs, S., Touster, L. O., Wright, L. K., Ratanasiripong, P., & Rodolfa, E. (2002). Negative supervisory events: Effects on supervision satisfaction and supervisory allia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3*(2), 197-202.
- Stoltenberg, C. D.,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 and therapist: A developmental approach*. Hoboken, NJ: Jossey-Bass Publisher.
- Skovholt, T.M., & Ronnestad, M.H. (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Chichester, England: Wiley.
- Tracey, T. J., Hays, K. A., Malone, J., & Herman, B. (1998). Changes in counselor response as a function of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19-126.
- Van Wagoner, S.,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 411 - 421.
- Williams, E. N., Judge, A. B., Hill, C. E., & Hoffman, M. A. (1997). Experiences of novice therapists in prepracticum: Trainees', clients', and supervisors' perceptions of therapists' personal reactions and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390-399.
- Worthen V., & McNeill B. W. (1996).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good" supervision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25 - 34.

The Effect of Supervisory Relationship on Development of Creative Arts Therapists: The Mediated Effect of Self-beliefs and the Moderated Effect of Supervisory Satisfaction

Kim, Dong-min

This study,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upervisory relationship, supervisee self-beliefs, supervisee development, and supervisory satisfaction in creative arts therapist train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12 creative arts therapy supervisees currently involved in clinical training and periodical supervision in undergraduate/graduate program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in data analysis, and the result showed that supervisory relationship affected supervisee development through the completely mediated effect of supervisee self-beliefs, and this structural relationship was stable enough not to be affected by supervisory satisfaction. This study provides considerable and concrete information on the importance and effect of supervisory relationship on creative arts therapist training.

key words: supervision, supervisory relationship, supervisee self-belief, supervisee self-efficacy, supervisory satisfaction, therapist development

1차원고 접수일 : 2015년 09월 12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5년 10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10월 21일